

‘전반기 돌풍’ 광주FC “후반기도 기세 몰아가자”

18경기 7승 4무 7패 승점 25
‘1강 9중 2약’ 판도서 선전
후반기 상위권 도약 기대



‘돌풍’, 지난해 K리그2 우승을 차지하고 1부리그에 올라선 광주FC의 올 시즌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다. 광주FC는 올 시즌 반환점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7승 4무 7패(승점 25)의 성적으로 순항하고 있다.

광주FC는 지난해 K리그2에서 25승 11무 4패(승점 86)로 최단기간 우승, 역대 최다승, 홈경기 전 구단 상대 승리 등의 기록을 수립하며 저력을 과시했다. 이어 올해 K리그1에서도 기세를 몰아 승격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돌풍의 중심에는 ‘효버지’ 이정효 감독이 있다. 이 감독은 ‘주도권 축구’를 통해 팀을 강팀들에게도 걸끄러운 상대로 거듭나게 했다.

모든 선수가 풍부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강한 압박 수비와 적극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는 끈끈한 조직력을 갖추게 만들었다.

특히 훈련과 연습경기를 통해 선수들에게 자극을 주고 선수단 33명 중 경기에 나가 기용되더라도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무



하나원큐 K리그1 2023 전반기를 7승 4무 7패(승점 25), 8위로 마무리한 광주FC가 후반기 상위권 도약을 노린다. 사진은 지난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16라운드 포항스틸러스와 홈경기 4-2 승리를 자축하는 광주 선수단.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 경쟁 체제를 구축했다. 그 결과 올 시즌 33명 중 30명이 리그 엔트리에 한차례 이상 포함됐고, 26명이 출장하는 등 거의 모든 선수들이 고른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공격 지표에서 상위 10위에 든 선수가 공격수 아사니(득점 9위·5개)와 수비수

두현석(도움 3위·5개) 뿐이지만 김한길과 박한빈, 안영규, 이민기, 티모 등이 포지션을 가리지 않는 고른 활약을 펼치며 동력을 확보했다.

더불어 무실점 경기가 여섯 차례로 대구FC와 전북현대(7경기)에 이어 인천유나이티드, 제주유나이티드와 함께 차순

위에 올라있고 24득점, 22실점을 기록하며 득실 마진도 +2를 유지하고 있다.

또 외국인 선수들이 모두 제 몫을 다하고 있다. 산드로가 불미스러운 일로 계약해지 수순에 있지만 공격수인 아사니와 토마스, 수비수 티모와 아론 모두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아사니는 K리그 데뷔전이었던 2월 25일 수원삼성전에서 자신의 데뷔골이자 팀의 선제골 겸 결승골을 터트리며 개막전 승리를 이끈 것을 시작으로 17경기에 출장해 5골 1어시스트를 올렸다.

토마스도 시즌 초 적응 난조에 부상까지 겹치며 주춤했으나 지난 7일 수원삼성전에서 자신의 데뷔골이자 팀의 동점골에 이어 역전골 겸 결승골까지 기록하며 상승세를 탔다.

티모 역시 17경기에 출장해 철벽 수비를 구축했고, 1골 1어시스트로 공격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론은 올 시즌 9경기에 출장해 코칭스태프의 요구를 잘 이행하고 있다.

다만 올 시즌 1강 9중 2약의 리그 판도에서 광주의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끝까지 지지 않는 체력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광주는 후반 30분 이후 실점이 가장 많은 팀으로 이로 인해 놓친 승점이 두 자릿수에 이른다.

현재 8위에 올라있는 광주가 2위 포항과 2경기(승점 6) 차이에 불과한 만큼 아쉬움을 털어내고 후반 막판 집중력을 잘 유지한다면 파이널A권(6위 이상) 진입을 노릴 수 있다. 또 창단 이후 최초로 AFC 챔피언스리그권(3위 이상) 진입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갈 길 바쁜 KIA, 또 부상 악재

김선빈 우측 엄지손가락 골절 의심
19일 재검진... 1군 엔트리 말소
루키 윤영철 휴식 차원 퓨처스행



여름 반등을 위해 김도영과 나성범의 부상 복귀만 애타게 기다린 KIA타이거즈에 또 부상 악재가 닥쳤다. 주장이자 주전 2루수 김선빈이 우측 엄지손가락 골절부상 의심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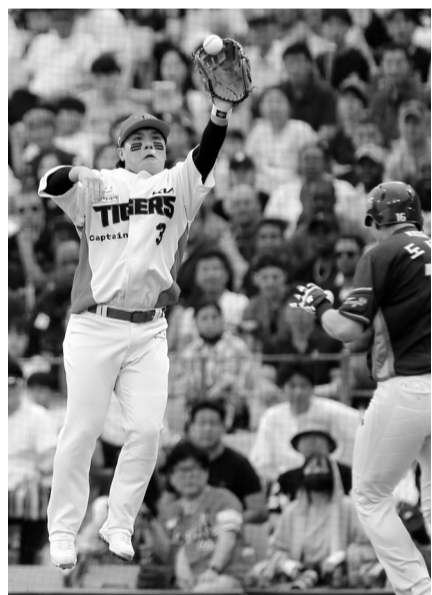
KIA 내야수 김선빈은 지난 1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리그 NC다이노스와 시즌 5차전 4회초 수비 도중 강습 타구에 오른손을 맞고 규규성과 교체됐다.

김선빈은 0-7로 뒤진 4회초 무사 1루에서 마틴의 2루수 직선타에 글러브를 가져다 댔으나 타구 각도가 갑작스럽게 꺾이며 오른손을 강타당했다. 김선빈은 엄지손가락 통증을 호소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했다.

김선빈이 처리하지 못한 타구는 2루수 포구 실책으로 기록됐고, 이후 도태훈에게 중전 적시타를 맞아 추가 실점을 허용한 것은 물론 앞선 데 맞던 격으로 병원 판정까지 좋지 못한 결과를 받았다. 김선빈은 구단 지정 병원 X선(X-ray) 촬영 결과 우측 엄지손가락 골절 의심 소견을 받았다.

김선빈은 오는 19일 서울에 위치한 골절 전문 병원에서 재차 정밀 검진을 받는다. 크로스 체크 결과에서도 골절 소견이 나온다면 장기 이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빈의 부상은 상위권 도약을 위해



KIA타이거즈 내야수 김선빈이 지난 1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리그 경기에서 1루 약송구를 처리하는 모습. KIA타이거즈 제공

갈 길 바쁜 KIA에게는 우울한 소식이다. 김선빈은 지난 17일까지 54경기에서 타율 0.302(179타수 54안타), 18타점, 18득점으로 맹활약하며 2루를 책임졌다.

같은날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된 류지혁은 큰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2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장해 6회말 1사에서 타석에 들어선 류지혁은와이드너의 투구에 오른발을 맞은 후 변우혁과 교체됐으나 우측 새끼발가락 타박상 소견을 받았다.

한편 3이닝 7실점으로 프로 데뷔 후 최다 실점을 내준 투수 윤영철은 김선빈과 함께 1군 엔트리에 말소됐다. 윤영철의 말소는 휴식 차원으로 투수 김기훈과 윤중현이 대신 풀업됐다. 한규빈 기자

전남 육상, 전국실업선수권서 금 3·은 5·동 4개 수확

장흥군청 김장우 세단뛰기 신기록

전남육상실업팀 선수단이 제27회 나주 전국실업육상선수권대회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며 선전했다. 장흥군청 김장우는 세단뛰기 대회 신기록을 세웠다.

18일 전남육상연맹에 따르면 지난 13-15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27회 나주 전국실업육상선수권대회에서 전남 육상 실업팀 선수들이 금 3개와 은 5개, 동 4개 등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장흥군청 김장우(24)가 남자부 세단뛰기 3차 시기에서 16m50으로 대회신기록과 함께 금메달을 확정지은 뒤 6차 시기에서 16m73을 뛰어 다시 한 번 대회신기록을 경신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해머던지기 1인자 목포시청 박서진(31)은 57m57을 던져 금메달을 획득했고, 여자 400m에 출전한 광양시청 이아영(28)이 56초69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남자 해머던지기의 목포시청 김진(24)은 61m26으로, 여자 1만m의 여주시청 김은미(32)가 36분17초45로, 여자



장흥군청 김장우(가운데)가 지난 14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27회 나주 전국실업육상선수권대회에서 남자부 세단뛰기 대회 신기록과 함께 금메달을 차지한 뒤 입상선수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남육상연맹 제공

높이뛰기의 여주시청 김은정(27)이 1m60으로, 여자 포환던지기의 목포시청 정소은(23)이 15m09로, 여자 해머던지기의 장흥군청 권수아(30)가 54m42의 기록으로 각각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남자부 10종경기의 광양시청 이승호(32)와 남자부 800m의 나주시청 김동욱(21), 여자부 5000m의 여주시청 김은미

(32), 여자 4x800m계주의 해남군청 박기란(32)·신미라(29)·김현진(24)·이규림(21)은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용주 전남육상연맹회장은 “전남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 매우 기쁘다. 이같은 성적은 지역실업팀 감독 및 코치들이 잘 지도해준 덕분이다”고 말했다.

최동한 기자

광주도시철도공사 장한빛, 양구평화컵전국유도대회 금빛 메치기

여일부 -70kg 결승 김은솔에 절반승

광주도시철도공사 여자유도팀 장한빛(27·사진)이 2023양구평화컵전국유도대회에서 금빛 메치기에 성공했다.

장한빛은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여자일부 -70kg급 결승에서 김은솔(안산시청)을 상대로 업



어치기 절반승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장한빛은 1회전서 손승민(포항시청)을 업어치기 절반승으로, 8강서 유현기(충북도청)에게 기권승으로, 준결승서 양지영(동해시청)에게 반칙승(지도3개)을 거

두며 결승에 올랐다.

장한빛은 결승서 김은솔을 만나 2초 만에 지도를 먼저 받았으나 28초째 상대 지도를 유도한 뒤 42초째 양소매 업어치기로 절반을 따냈다. 이후 공격과 수비를 적절하게 하며 2분30초째 상대에게 지도를 1개 더 따냈고 끝까지 버티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최동한 기자